



3년

“국민 신임 얻는 데 실패... 시행착오 반성”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음 3월 7일) 제3484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따스한 봄날 설렘 도내 봄 축제 다채

19일 익산 문화유산야행 · 20~21일 광활갯마을축제 등 전북자치도, 바가지요금 등 없는 '3無 축제' 실현 만전 지역축제에 야간 불거리 제공, 체류형 관광 활성화 기대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다채롭고 내실있는 축제를 준비해 관광객을 맞이한다.

전북자치도는 봄꽃 축제를 비롯한 예술공연 및 전통문화체험,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지역음식체험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특히, 도는 4~5월 중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가 없는 '3無(無) 축제'를 실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에 따르면, 4월에는 지난 13~14일 열린 모악산웰니스축제를 시작으로 △19일, 익산 문화유산야행 △20~21일, 김제 관활갯마을축제 △22일~5월 21일, 남원 바래봉 절충제 △26~28일, 순창 슬로슬로발효축제 △26일~5월 12일, 고창 청보리밭축제 △27~28일, 도마유지페스티벌축제가 개최된다.

이어 5월에는 2~4일 개최하는 군산 평당보리축제를 시작으로, △2~6일, 김제 지평선 추억의보리밭축제 △3~6일, 부안 마실축제 △3~6일, 익산서동축제 △4~6일, 반려동물 문화축제의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N스타 △10~12일, 고창 오감체험페스티벌 △11~12일, 완주오성함옥오픈가든축제 등 불거리 가득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축제의 계절 9월과 10월에는 전북자치도 시군 대표축제인 △무주반딧불 축제 △장수한우방사과랑 △진안홍삼 축제 △정읍구절초꽃축제 △임실N치초축제 △전주비빔밥축제 △군산시간여행 등 12개 축제가 열릴 예정이며, 각 지역의 맛과 멋, 풍성한 즐길거리 가득 담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등 벌써부터 축제 준비에 바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체류형 관광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야간경관

과 연계한 야간콘텐츠를 발굴해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불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김제시는 시민운동장에 바래대양광, 터널조명 등 벚꽃길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꽃빛드리 축제를 개최했으며, 향후 익산서동축제 및 고창도양축제 등 각 지역 대표축제에도 형형색색의 조명을 활용한 야간경관과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축제 또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도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한 축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축제에 더 이상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축제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먹거리 입점단체·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축제 물가관리 및 축제 중 현장평가 실시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민반의 준비를 다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하는 시군에 내년도 축제에 산을 차등지원하고, 시군은 먹거리부스 적정가격 미준수 입점단체에 향후 3년간 참여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적인 축제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자제 및 대화용기 사용을 축제조직위에 권장하고 있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겸 "다양한 축제와 관광지를 전북에서 버스와 연계해 많은 관광객들이 전북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전북 축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매일



지난 12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세미나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지자체, 전북테크노파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바이오 유관기관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열의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내공 쌓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위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서울대 최성화 · 장구 교수, 액트너랩 조인제 의장 특강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 · 의약품 원료개발 방안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선정에 앞서 산·학·연·병·관 협업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생명 자원을 활용한 글로벌 생명산업 육성 및 바이오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전북의 감점을 부각시킨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특례 발굴 등 특별자치도로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해 의생명산업 거점화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주·익산시·정읍시 등 지자체, 전북테크노파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바이오 유관기관, 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가 참석해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열의를 다졌다.

주제발표는 최성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 장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조인제 액트너랩 의장이 차례로 나서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및 크리스퍼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원료개발 등의 내용으로 열린 강연을 이어갔다.

최성화 교수는 지플러스생명과학 대표이사로, 국내 유전자기위 중 가장 최신 플랫폼인 크리스퍼 캐스12(CRISPR-Cas12)를 적용해 항암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유전자기위란 생명체가 보유한 DNA 절단 기능을 가진 도구를 의미한다.

장구 교수는 (주)라트바이오 대표이사이자 JTBC '차이하는 클래스', tvN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에 출연하는 등 수의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조인제 의장은 하드웨어 및 헬스케어

분야 액셀러레이터인 액트너랩을 창업한 인물로 국제적인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바이오 스타트업들을 세계적으로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함께 고민하고, 유전자 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개발 및 동물 연구와 연계한 바이오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산·학·연·병 네트워크를 탄탄히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도는 지난 2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도전장을 내고 유치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검토·평가 거쳐 상반기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올 도내 신규 공중보건기사 78명 오늘부터 복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신규 공중보건기사 투입으로 의료공백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북자치도는 신규 공보의 78명이 도내 봉어촌, 도서 지역 보건기관 등 의료취약지에서 15일부터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공보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32명, 치과 17명, 한의과 29명이다.

전북자치도는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보의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는 순회진료, 원격진료 등 서비스를 다변화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지역 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이번에 투입되는 공보의는 △의료기관이 없는 보건지소(무주, 장수, 임실, 순창), △도시지역(군산 어청도·개야도, 부안 위도), △지방의료원(군산, 남원, 진안),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정읍1, 고창1, 부안2)에 필수 배치하고, 잔여 인력을 시군 보건지소에 배치했다.

도내에는 신규 78명을 포함해 총 288명의 공보의가 근무한다. /김재훈 기자

